

# 기울어져가는 불교를 다시 세우려던 자취담은 곳

## 조선조 불교중흥의 산실 봉은사(奉恩寺)



몇 해 전 도심의 큰 사찰이 재정을 발표해 세간에 관심이 집중된 곳이 있었다. 재정을 공개하는 일은 그곳에서 신행하는 불자들에게 당연한 일인데 우리가 의아하게 여기는 것은 그동안 별로 없었던 일이기 때문이다. 그곳은 직할사찰 지정을 둘러싸고 또 한 번 여론의 중심이 되는 것을 보면서 새삼 그곳이 한국불교의 중심임을 느꼈다.

80년대 전후 개발된 강남은 한국사회의 중심이 됐다. 이곳에서 유행하는 코드는 한국의 대표적 문화가 됐다. 세상에 이름을 내리면 이곳에서 이름을 내어야 할 만큼 강남은 한국사회의 아이콘이다. 이곳에 있는 봉은사 역시 한국불교의 아이콘이다. 앞서 말한 세간의 관심이 없어도 대도시에 자리한 것부터 경이롭고, 이곳에서 펼쳐지는 포교에 한국불교 미래가 걸려있기 때문이다.

한국사회의 종교는 다종교 체제에서 교세확장을 위해 치열한 경쟁을 벌이고 있다. 한국불교 역시 강남에서 성공하지 못하면 한국 제일의 종교라는 이미지를 상실할 수 있을 만큼 기로에 서있다. 그런 면에서 봉은사는 한국 현대불교의 중흥지가 되어 한다. 그 책임은 이미 500년 전부터 시작됐다. 기울어져가는 조선 불교를 중흥하려는 역사가 이곳에 있었기 때문이다.

조선 초 세조 덕분에 불교는 잠시 숨 돌릴 수 있었다. 그러나 불교에 대한 완화 정책은 재위기만 뿐이었다. 성종이후 다시 배불로 치달으면서 조선불교는 암울해졌다. 내불당이 궁 밖으로 옮겨지고 도성 안 비구니 사찰이 철거됐다. 그리고 사대부 여자의 출가가 금지됐다. 친히 국정을 다스린 이후에는 일체의 사찰을 장전하지 못하게 했으며, 옛터에 다시 중창하는 일도 허락하지 않았다. 경국대전이 완성되면서 불교계에 불리한 조항이 다수 수록됐다.

이러 왕위에 즉위한 연산군은 원찰을 제외한 모든 사찰의 토지와 노비를 몰수해 불교계에 심한 타격을 주었다. 흥덕사를 철거하고 교종도회소를 원각사로 이전했으며, 선종도회소인 흥천사는 이듬해 5월 궁중의 말을 기르는 곳으로 바꾸면서 양종도회소는 이름만 유지됐다. 조선조 명맥을 이어오던 승과는 실시하지 않아 폐지의 빌미를 주었다.

반정으로 왕위에 오른 탓에 중종 때는 공신들을 비롯한 신료들의 권한이 커졌다. 자연히 불교배척 역시 강해 <동국여지승람> 소재 이외의 사찰을 모두 없애고 사원의 전답을 그 지역 향교에 속하게 했다. 승과가 폐지된 인재 등용에 어려움을 겪게 했다. 급기야 경국대전에 있는 度僧條가 삭제되면서 법적으로 승려가 되는 길이 없어졌다.

이런 조선조의 분위기에서 봉은사가 역사의 수면 위로 떠오른 것은 연산군 4년(1498) 정현왕후(貞顯王后)가 선릉(宣陵)의 원찰로 건성사를 중창하고 봉은사로 개칭한 이후이다. 이후 문정왕후와 허응당 보우가 만나면서 불교중흥의 중심지가 됐다.

중종 12년(1517) 왕비에 책봉된 문정왕후는 자신이 중전이 된 것과 왕자를 얻게 된 것 모두 부처님의

공덕으로 여기고 때가 되면 불교를 중흥하겠다는 서원을 세웠다. 1545년 인종이 죽고 명종이 12세로 왕위에 오르자 수렴정정하면서 평소 갖고 있던 불교부흥의 뜻을 폈다. 이때 전거된 고승이 설악산 백담사에서 수행하던 허응당 보우였다

허응당 보우는 중종 4년(1509)에 태어나 15세가 되던 해 금강산에 들어가 6년간 수도하고 하산했다. 당시 배불정책에 의해 많은 사찰이 사라지고 수행자가 핍박받는 현실을 개탄하면서 다시 입산해 4년 동안 수행했다. 그 뒤 산문을 나와 많은 불사를 행하면서 명성이 알려지게 됐다. 명종 3년(1548) 12월 문정왕후가 불교를 부흥할 고승을 구할 때 전거된 봉은사 주지에 임명됐다. 보우 또한 그런 뜻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불교 중흥책은 바로 실시될 수 있었다.

이런 분위기에서 보우가 제일 먼저 실행한 것은 선교 양종의 부활이었다. 연산군 때 폐지된 정계산

### 친년고찰 봉은사는 강남 불교의 아이콘

허응당 보우 선사가 가르침 퍼던 때부터

봉은사의 한국불교중흥 역사는 시작돼

정계사로 옮겨진 양종도회소는 유명무실했다. 그런 양종도회소를 명종 5년(1550년) 부활하고 봉은사를 선종의 본산으로 했다. 이때 교종의 본산은 본선사가 됐다. 다음해 보우는 판선종사도대선사(判禪宗事都大禪師) 봉은사 주지가 됐다. 이때부터 봉은사의 사격이 전국에서 으뜸이 됐다. 이런 문정왕후의 불교정책에 대해 각 사원(司院)의 상계와 성균관과 지방의 유생들이 올린 항소가 300여 건이 넘었다. 이런 주장에 맞서 문정왕후는 오직 나라의 폐단을 구하고자 할 뿐이며, 양종을 다시 세우는 일도 임금과는 관계가 없고 모두가 자신의 책임이라 주장하면서 불교중흥의 고삐를 늦추지 않았다.

선종판사에 임명된 보우는 승과를 부활해 불교계의 인재를 선발했다. 먼저 각 지역에서 초시에 응시할 수 있는 인원을 설정했다. 지역적 특색에 따라 응시자의 숫자에 다소 차이가 있었다. 평안도 함경도는 각 100명, 전라도 경상도는 각 500명, 황해도 충청도는 각 400명, 경기 강원도는 각 300명으로서 모두 2600명이 양종으로 나누어 응시했다. 평안도와 함경도가 다른 도에 비해 그 숫자가 적은 것은 북쪽의 경계이므로 군정의 수가 줄어들 것을 염려한 결정이었다. 초시에서 양종은 각 100명씩 선발했다. 명종 7년 4월 12일 예조의 주관으로 봉은사와 봉은사에서 실시한 복사에서 선종 21인 교종 12인을 뽑았다. 이런 계기로 봉은사 앞 들뜬 승과僧(僧科)이



라 불리게 됐다. 이때 실시된 승과에 의해 조선 불교 중흥의 대조사인 서산대사 형허 후정이 뽑혔으며, 그 후의 승과에서 등용된 사명당 유정도 국난타개의 공을 세우는 허응당 보우가 예견한 것처럼 조선불교를 위한 인재가 선발됐다.

이때 실시된 승과는 잠과에 의해 백배를 발급하고 등수를 나누어 사목(事目)에 기록했다. 승과를 통해 선출된 승려들은 내원당의 지음(持音)으로 임명됐다. 명종 7년 4월에 치러진 복시 이후 승과는 식년이 되는 해마다 거행됐다.

이렇게 불교중흥의 중심지가 된 봉은사에 힘을 실어준 것은 중종의 묘 정릉(靖陵)의 천장이었다. 중종이 죽자 먼저 돌아간 왕비 장경왕후의 희릉(禧陵)에 묻혔다. 수렴정정을 하던 문정대비는 자신이 죽으면 중종과 함께 묻히고 싶었다. 명종 17년(1562) 9월 선릉의 동쪽 기슭에 있던 옛 봉은사 터에 중종의 정릉(靖陵)을 옮겼다. 이때 봉은사는 지금 수도산의 위치에 옮겨 대규묘로 확장되면서 경산제찰(京山諸刹)의 으뜸이 됐다.

봉은사의 사격은 커졌으나 중종의 능을 이전하는 일에 대해 책임을 맡은 보우는 유신들의 극렬한 비판과 불교인들의 모략으로 곤란하게 됐다. 그런 분위기 전환하려고 회암사를 중건하고 낙성식을 겸해 무차대회를 계획하지만 문정왕후의 건강악화로 중지할 수밖에 없었다. 이런 분위기를 간파한 문정왕후는 자신의 죽음에 압박해서 내린 언문 유서에서 승과에 대해 옛날 그대로 보존했으면 좋겠다는 자신의 생각을 피력했다.

그러나 명종 20년(1565) 문정왕후가 죽자 불교 중흥책은 더 이상 진행할 수 없었다. 그 동안 문정왕후의 눈치를 보던 대신들은 양종과 함께 승과를 폐지하고 보우를 몰아내려는 상소를 올렸다. 그들의 상소가 계속되자 명종은 보우의 승직을 박탈하고 이어 양반들의 사찰 참배를 금지했다. 다음해 4월에 이르러서 명종은 선대의 승과 폐지에 대한 연유를 묻고, 이를 폐지하는 전교를 내렸다. 보우를 처단하라는 상소가 빈번하자 왕명으로 제주도로 유배시켰다. 그곳에서 명종 21년(1566) 제주에서 제주목사 변협에게 장살돼 생을 마감했다. 조선불교의 중흥이 일시에 무너지는 순간이었다.

그 후 불교는 조선사회에 가치를 인정받지 못하고 어려운 시간을 견딜 수밖에 없었다. 수많은 사찰이 폐사에 이를 정도로 고통의 시간이었다. 봉은사 역시 그 인고의 시간을 견디고 지금 강남에서 한국 불교의 대표주자로 열심히 뛰고 있다. 지금까지 잘 해왔지만 앞으로 불교계의 가치상승과 다른 종교와의 경쟁이라는 안팎의 어려움을 지혜롭게 헤쳐 나가야 한다.

경내에 서있는 미륵대불을 보니 보우 스님이 미륵불로 환생해 울지 또 다른 개혁자가 미륵불로 울지 모르지만 한국불교의 중흥자가 다시 한 번 이 땅에 오시기를 간절히 빌어본다.



김경집/지각대 교수

## 탄허대종사 대방광불화엄경 현토 (80권본)

### 특별판매

현불삼 독점판매 기념 할인 이벤트 「200질 한첩판」  
30만원 → 25만원 (선착순 마감)

세つ 전 5권을 줄여서 '화엄경'이라고 부르기도 하는 『대방광불화엄경』은 부처와 중생은 하나라는 것을 기본사상으로 삼고 있으며, 화엄중의 근본경전으로 법화경과 함께 한국 불교사상 확립에 큰 영향을 미친 불교경전 가운데 하나로 불린다. 석가세존께서 보리수 아래에서 바른 깨달음을 이루신 지 2·7일이 되던 때에 말씀하신 것을 옮긴 화엄경에는 6가지 본이 있으며, 3가지 번역이 있다.

화엄경은 당나라 중종 임금의 사성 12년부터 16년까지, 즉 서기 695년부터 366년까지 5년 동안 실차난타가 번역한 것으로 7처에서 90회에 말씀하신 것을 모아 39품 80권으로 구성되어 있다. 당나라 때 번역하여 당본 '화엄경'이라고 하고, 80권으로 되었다고 해서 '80화엄'이라고도 한다.

교림출판사  
전 5권 전집 | 금강 | 최고급양장제이스 | 라이온코트지 마색 80그램 | 율케이스 | 전철2도 인쇄

현불삼 02)2004-8215

## 희담석 건강용품 사은대잔치

방사능력이 탁월한 희담석의 생명에너지로 건강과 활력을 찾으세요.

**희담석 염주세트**  
32,300원 (염주, 염주 주머니)  
· 사은품 : 희담석합장주 (날개) 1만원  
· 크기 : 직경 10mm  
· 희담석 108염주 출시기념! 희담석 합장주 증정!

**희담석 염주는**  
· 어깨 걸림 등으로 고생하시는 스님  
· 목과 팔목이 늘 빠근한 보살님  
· 피로가 누적된 불자  
· 온종일 책상에 있는 청년불자들의 수행과 업무에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 희담석 활용 100% 활용 방법**  
희담석(염주, 합장주등)을 하루에 한두 번 정도 몸에서 잠시(약 1분정도) 내려놓으세요.  
몸에서 분리된 희담석은 그때까지 희담석이 머금고 있던 몸의 나쁜 기운을 내뿜은 후 원래의 희담석 상태로 되돌아갑니다.

☆ 희담석(稀潭石, Batu Hitam)이란?  
화산 폭발시 용암과 함께 분출된 무기물이 오랜 세월을 거치면서 굳어진 화산석(현무암)의 한 종류입니다. 동남아 오지의 주민들이 예부터 치료용으로 사용해오던 것을 원적외선 파동검사등 성분 분석을 통해 인체에 유익한 에너지를 가진 것임을 입증하였습니다. 희담석은 생명의 돌이라 불릴 만큼 분출되는 생명에너지의 양과 질이 뛰어나습니다.

· 주문 : 현대불교 현불삼 02)2004-8216 [농협] 053-01-269062 (주)현대불교신문사